

Yullin Newsletter

MAY. 5

열린교회 신문 2022.5 vol.323



말씀솔루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성경의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선지자가 깊이 고뇌하던 주제를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하나님께서 답해주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을 깊은 회의 가운데 빠뜨린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부정의한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리와 부정의가 판치는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부정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3장에 와서는 높은 수준의 신앙과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3:17-18)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식생활에 위협을 받는 곤궁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수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성한 수확이 달리게 되거나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과 꿀과 값진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역사 속에서 묵도함으로 한없이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때처럼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기에 신자는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

<하박국 설교 모음>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의 힘/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강한 영혼으로 사는 길



김남준 담임목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 138:3

본문해설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들을 승리한 경험을 노래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게 하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 중에서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되거나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욱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버린 삶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곤고한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당신께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구에 응답해 주심

하나님께서는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

인이 어떠한 이유로 시련이 있었는지는 본문으로써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다시 주님의 사랑에 굳게 묶여 하나님을 바라며 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시 116:1).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돌아보며 지금이 주님께서 간구하게 하시는 때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힘을 주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몸에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면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정신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피곤한 몸을 잠시 쉬게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질서를 제대로 돌려놓으면 다시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애태웠던 이 세상의 다양한 표상에서 벗어나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탐욕과 어리석음, 욕심, 분노 등으로 출렁거렸던 우리의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사물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영혼이 쉬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입됩니다. 비로소 영혼은 육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이 영혼의 삶을 삼켜 버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힘을 주시

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찌 무개가 없겠습니까? 그 무개를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집니다. 분노를 표출해 보기도 하고, 탐욕을 부려도 보지만 그것들은 진통제이지 영원한 치료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서

간절한 기도는
영혼의 활발한 움직임이기에
간구할 때 영혼은 강건해져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유지해
항상 간구하는 성도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인에게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를 주신 것도 그가 기도하게 하셔서 영혼에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영혼의 움직임

기도는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영혼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간절히 간구할 때 그의 영혼을 흔들며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달은 신자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렬하게 기도하던 신자가 갑자기 아무런 기도도 드릴 수 없게 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

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하여,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갇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겠으며,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품고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맺는말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은 작은 나뭇가지들을 태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모닥불을 태우는 것 같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부터 영혼을 강하게 하는 기도로 발전시켜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잠들었던, 쇠약해졌던 우리의 속사람을 힘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영혼에 힘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

담임목사 동정

- 5.7 피택임직자 교회 개척 장소 현장 탐방 인도
- 5.10 목사, 장로기도회 설교
- 5.13-14 장로 피택자 수련회
- 5.14 유아세례식
- 5.15 학습, 세례, 입교식
- 5.17-19 서초시찰회 수양회 참석
- 5.21 열띠크립 설교
- 5.24 총신대생 열린교회 탐방식 특강
- 5.28 섬김영광의 날 임직식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교회학교섬김조직

교육사역 확장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다



박재현 교회학교 디렉터
heejeong.choo@gmail.com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코로나 중에도 중단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역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양과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은 지속되었습니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2022년도 교회학교 사역들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첫째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강화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회학교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학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세빛교실과 등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취학부에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등불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취학부와 청소년부서에서는 예배 이외에 정규화 된 신앙교육의 기회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미취학부에서는 세빛교실, 청소년부서에서는 등대학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청소년 사역의 확장입니다. 청소년부서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수련회 이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등대학교와 함께 연 2회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열띠편캠프)가 계획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넷째로 회심집회의 재개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다른 사역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회심집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심집회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뜨겁

게 기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회심집회는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섯째로 오프라인 사역 준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풀리는 상황입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녀들 교육부서인 사랑부 사역과 일반 교육부서에서 특별히 전문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꿀품교사' 운영에도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열린교회교는 청·장년 수에 비해 교회학교 학생들 수의 비율이 대략 2:1(더 세밀한 근사치로는 16:7 정도)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차세대 기독교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지만 교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교회학교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교회학교에서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섬김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교회학교 디렉터)

태아부

교역자 : 김현희 전도사
부장 : 김지연
부감 : 권금옥

영아부

교역자 : 김민정 전도사
부장 : 이경자B
부감 : 이윤혜
총무 : 장미연
회계 : 장은희
서기 : 임하나

유년부

교역자 : 정명원 전도사
부장 : 김연주
부감 : 최현혜
총무 : 한요한
서기 : 서종현
회계 : 신진수

중등부

교역자 : 이두호 전도사, 홍명철 전도사
부장 : 강준구
부감 : 최금주
회계 : 심영숙
총무 : 이희경
서기 : 금요섭

사랑부

교역자 : 양승희 전도사
부장 : 유재명
부감 : 김혜정F
총무 : 박정환
회계 : 오수빈
서기 : 유영은

유아부

교역자 : 이지연 전도사
부장 : 이현희A
부감 : 이지숙
총무 : 송힘찬
회계 : 김다이

초등부

교역자 : 김태영 목사
부장 : 이인호
부감 : 김혜정B
총무 : 김혜선
회계 : 김혜정B
서기 : 김지현D

고등부

교역자 : 김진산 전도사
부장 : 김종성
부감 : 이은경C
총무 : 김한빈
서기 : 이난영
회계 : 최우미



유치부

교역자 : 신하경 전도사
부장 : 김명자G
부감 : 박재현
총무 : 나선영
회계 : 김주혜A

소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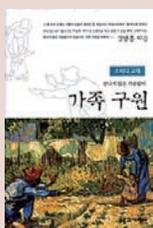
교역자 : 김민성 전도사, 최영광 전도사
부장 : 신현욱
부감 : 홍순욱
총무 : 박병록
서기 : 김승하
회계 : 이연화A



5월 추천도서

가족구원 김남준/부흥과개혁사

현재 불신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불신 가족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불신 가족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려 노력하며, 불신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삶과 말로 전도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김남준 목사의 <가족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불신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점검 표임을 보여준다.



“가정의 복음화는 흘릴 피를 다 흘리고 쏟을 눈물을 다 쏟고 찢을 살을 다 찢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가족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예스24)

포토에세이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고난주간새벽십자가사경회 취재

소명의 자리에 있는가?



사경회(查經會)

열린교회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의 사경회가 열린다. 사경회가 규칙적으로 열린다고 그 어휘가 가진 무게감이 약화될 수 없다. 이는 역사가 말해준다. 시대의 영적 각성과 종교개혁은 말씀과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았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때도 그랬고,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도 그러했다.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 담임목사님의 표현처럼, '기독교에서 기등과 같은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은 교회가 말씀 앞에 집중하여 서는 시간이 사경회이다. 열린 교회 새벽 십자가 사경회는 3월 27일 주일부터 시작하여 4월 11일~13일 새벽과 이후 금요일까지 일곱 번의 설교로 이어졌다. 대면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주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였다.

예수가 십자가 지실 때 -

사경회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였다.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마26:70~75)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통해 배웠다. '피 묻은 리포트'(눅23:34~35)에서는 자신을 못 박고, 옷을 나누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클수록 하나님은 커 보이고 세상

은 작아 보임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회심하다'(눅23:39~43)에서는 최초의 회심자가 된 강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이 십자가에서의 회심과 내세신앙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요19:33~35)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역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십자가에서 풀어주시다'(요19:25~27)에서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던 요한을 십자가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도망쳤던 요한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를 위탁하시며 요한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길 원하셨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눅23:28)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애통하며 울던 여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다.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마27:34)에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류 대속의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교회에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소명의 자리에 있는가? -

설교자는 사경회 말씀의 끝부분에서, 당신이 우체국에 근무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많은 종류의 편지 중에 속달우편, 이후 특별우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관리를 통해 가장 빠른 통로로 배달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는 '있어야 할 그 자리' 즉 소명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드리는 기

도이다. 회심 후 주님을 떠났을 때 재회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를 통해 주님은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구원은 한 사람씩 이루어지지만, 교회라는 연합공동체에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에필로그 -

유럽사를 보면, 중세 후기로 갈수록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상공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경쟁하듯 건축, 특히 성당 건축에 몰두하였다. 가톨릭교회는 점점 성경을 떠나 화석화되었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인간관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모든 사물의 중심에 두는 변화였다. 그 와중에 유럽의 인구 삼분의 일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이런 어두운 시기를 지나며 말씀으로 각성된 마틴 루터의 망치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며 온 시대를 강타하였다.

기나긴 코로나 전염병의 터널을 지나며 망치 소리를 듣는다. 사경회에 올려져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 소리이다. 이 소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일깨워준다. 죄 없으신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크기는 딱 예수 죽인 만큼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망치 소리가 교회를 일깨운다. 사경회 말씀을 통한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십자가에서 이탈한 만큼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 오, 주님! 저희를 다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세워주소서!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고난주간십자가사경회 후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추희정 장년4교구
heejeong.choo@gmail.com



저는 작년에 불신자인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본인과 가족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폐암 진단과 투병으로 더욱 더 다급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중한 상태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항암 치료로 생사를 오가실 때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며 이번 한 번만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아버지를 꼭 전도하겠다고 매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선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작년 고난주간에 아버지는 극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로 이어진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님의 가정 심방과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투병 끝에 임종예배로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와 보니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충격적인 상황의 연속으로 온 가족이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지만, 주님께선 저와 교회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소천하심을 믿으며 우리 가족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어 다시 고난주간을 맞으며 작년에 소중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새벽십자가사경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서 마지막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무지와 무심과 무정한 생활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에 집중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이후 나 자신도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며 이웃을 돌보며 살라고 하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삶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회복하도록 돕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와 핏질한 영혼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부활의 의미는 더 분명해졌고 소망은 더 커졌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가족과 이웃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매번 배반하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

회심집회 후기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래요



유치부 황지예



유치원 가기 전에 매일 신발장 앞에서 언니와 저를 위해 엄마가 회심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셨는데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고 회심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은혜로울 것 같은 기대가 되었어요. 회심집회를 가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신났어요. 그리고 말씀시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내서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뾰족을 보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뾰족을 보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말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었어요. 뾰족을 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도 뾰족을 바라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기도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곧 만나주신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심집회를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옆에 친구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처럼 간절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가 끝나고 공과시간에 만들기 할 때도 예수님이 날 만나주신 게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신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회심집회에서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신나는 회심집회였어요.



유년부 박은찬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 유년부 빌립 2반 박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4월 16일 토요일에 아빠, 엄마,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회심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었습

니다. 찬양이 마치자 전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린도전서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심집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요한이 자기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될 거예요.



초등부 박상호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 초등부 3학년 4반 박상호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열린교회를 다녔고 사경회는 참석해 본 적이 있었지만 회심집회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집회 설교시간에는 김남준 목사님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무서웠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설명을 들으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회심집회 때 받은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년부 박한겸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제자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 이번 회심집회 때 평평 울었습니다.

회심집회 말씀을 듣고 나는 요한과 같이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년부 윤하람



이번에 있었던 회심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같다. 요한이 예수님께 돌아간 게 내 마음을 꼭 찌른 느낌이였다.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많은 회심집회에 참여했지만, 믿음의 눈물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회심집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눈물이 흘렀다. 꼭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내가 흘렸던 눈물은 회심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설교를 통해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내가 죄를 몹시 많이 지어 부끄러웠다. 나도 이제 요한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5월 주요사역

- 1일(주일) 교회학교 교사/학부모 세미나
- 14일(토) 유아세례식
- 15일(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
- 21일(토) 열띤(Teen)캠프
- 28일(토) 섬김영광의날 임직식
- 29(주일) 청년부 리더 수련회

새가족

▶▶ 장년

- 소정은(73) 강신선(66)
- 송수남(72) 김경아(65)
- 이가영(89) 이영주(90)
- 박주연(77) 이연혜(88)
- 이재윤(91) 이영분(62)
- 홍정민(89)
- 정광석(86)
- 나진주(94)
- 이정훈(71)
- 김묘향(73)

▶▶ 청년

- 이선민(02)
- 구수경(92)
- 이권상(87)
- 강현석(92)
- 김주영(95)
- 권영국(84)
- 이성현(90)
- 유가영(00)
- 김학정(90)
- 양홍석(88)

섬김 영광의 날

임직 감사 예배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
임직식

일시
2022년 5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열린교회 본관 3층 예배실

열띤(Teen)캠프

“

어서와

교회는 오랜만이지?

”

열린틴즈(Teens)만을 위한 캠프로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서로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캠프입니다

일시 **5월 21일(토) 오후 4-6시**

장소 열린교회 본관 3층 예배실

강사 및 찬양팀
김남준 담임목사(강사), 로드웨이브(찬양)

세빛교실 후기

아이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현희 장년교구
kellyhh@naver.com



처음 세빛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회심집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마음을 준비할 기회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이들이 말씀 앞에 보이는 정직하고 순수한 반응을 볼 때이나, 또는 점점 성장해가며 죄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을 보게 될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쁜 회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나는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영유아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집에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지만 집이란 특성상 삶 속에서 가르칠 기회는 많아도 쉽게 흐트러지고 나태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세빛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정돈되고 집중된 환경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3주에 걸쳐 듣게 된다니 잘 됐다 싶었다. 더욱이 3살과 5살의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다는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딱 3살과 5살이라 가족들이 갈라져 누구 하나 집에 있고 할 것 없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부모들도 같은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더 복음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니 기대가 되었다.

세빛교실이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 여느 토요일처럼 늘어지지 못해 피곤하던 몸은 아이들과 떨어져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며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도 쉽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고민하며 갈등을 느끼던 부분을 주제강의에서 잘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교육은 3주간 담임목사님의 저서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세 가지 주제인 행복(진정한 행복의 근원), 눈물(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회심(회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크게 주제강의와 조별나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간결했지만 중요한 핵심을 명확히 짚고 있어 내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 주었다.

조별나눔 시간은 주제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삶을 돌아보며 배운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할지 나누는 시간인데,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

같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창조, 죄와 구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오감활동으로 배운 내용

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매주 세빛교실을 마칠 때마다 나와 남편에게 오감활동의 결과물과 간식 보따리를 뿌듯하고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한아름 안겨주었다.



지난 3주간 세빛교실을 하며 우리의 주말엔 조금 변화가 있었다. 금요일엔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며 세빛교실을 준비하느라, 토요일 오전엔 세빛교실로 은혜를 받게 되어, 금요일 밤과 토요일 오후가 자연스럽게 방탕함(?)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이들도 금-토-일에 계속 복음을 접하다 보니 말 못하는 둘째는 그렇다 치고 첫째는 이번 계기로 복음을 훨씬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던 3주간의 세빛교실은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일 테다. 배운 것들, 적용하기로 다짐한 것들을 돌아보며 실천하고 나부터가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기에 힘써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겠다. ☆

유아세례교육 후기

주님만이 이 아이의 행복의 근원이시기에...



권화영 장년4교구
acekwonhy@naver.com



갓 태어난 첫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아이의 행복의 근원 이십니다." 비슷한 기도제목 같지만 참 다릅니다.

큰아이를 기를 때, 저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감격과 확신에 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를 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는 경건생활을 게을리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를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첫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했던 다짐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생각으로 양육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걷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서툴고 부족했던 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고 다시금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둘째 아이의 유아세례 문답을 준비하면서 문답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다가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부분은 멈추고 힘주어 읽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졌던 문답을 반복적으로 되뇌다 보니 깊은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로소 문답을 외우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 그 자체이며 저의 속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마음에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꼭 외워서 표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사적인 가르침으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언어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기뻐하는 둘째 아이의

모습,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걷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아이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자녀들을 주도하지 않고,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이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넘어지지만 그 때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양육자이고 싶습니다. 온전히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게 하시며 아이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분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유아세례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귀한 자격에 힘입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나에게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육아의 수고를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려 합니다. ☆

경주자(교역자칼럼)2

인생5막



박숙현 새가족교구 담당전도사
joyfulheart1@hanmail.net



나의 인생5막을 열고 있다. 인생5막! 나의 인생길을 연주하는 나만의 계산법이다. 생의 대부분을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고, 복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허풍 어린 삶의 연주를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 이어,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도 아니고, 감상할 만한 흥미로운 그림도 아니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대단한 헌신이나 하듯 시작한 사역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뭐 그리 말씀드릴 것조차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일을 감사하며 시간을 채우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아름다운 60을 맞아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이 한다는 은퇴를 '기대감' 어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맞이 하였지만, '기대감'이란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쳇말로 '뎀봉!' 몹시 당황스러웠다. 은퇴의 60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사랑하던 곱디곱고 조글조글한 나의 외할머니가 아니었다. 내가 사랑하던 조글조글한 외할머니이기에는 건강하고 너무 젊었고, 게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아직도 살아야 할 시간이 10년, 아니면 20년, 그것도 아니면 30년..., 내가 지나온 세월의 반을 더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신비로운 환경을 맞이한 것이다. 그 깊고 깊은 심연(深淵)의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마치 폭풍의 가장자리에서 휘날리는 낙엽처럼 휘몰아가 넘나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늠음'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태초이시고, 영원' 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 세상에서는 은

퇴를 하는 젊은 늙은이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 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야" 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아이답게 천진하게 우뚝 일 어선다.

나는 작고, 세상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겠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매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명감에 가슴을 떨치며 일어선다. 매일을 기도할 수 있고,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할 수 있고, 매일을 사지(四肢)를 움직여 무엇인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엄숙한 사명 말이다. 무엇으로 나의 인생5막을 채워갈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코람데오)! 오로이 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채워가 생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 가리라, 하는 벽찬 사명 말이다.

예쁜 꽃들이 피어 아름다운 향기가 나뉘, 시원한 힘을 주시고, 매일 먹는 음식이 즐겁게 해주시고, 매일의 잠을 노래로 감사하게 하신다. 기대와 당황의 반죽으로 시작한 인생5막의 새로운 한 장에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 지난날에 잘해서가 아니라, 생의 남은 시간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또 하나의 의미를 주셨다. 그래서 부지런히 감사하며 달려보려 한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을 의미로 가득 채워주셨던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달려보려 한다. 비록 젊은 청년의 열기, 열정과 에너지, 반짝이는 스마트함의 총명함은 부족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즐거이 달려가 선하신 주님을 뵈우고 감사하리라. ☆

곰곰이 생각

신앙에 눈을 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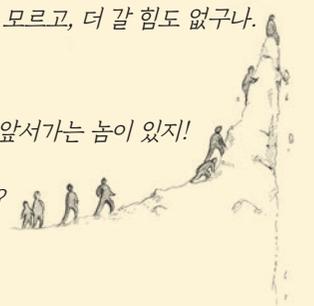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신앙에 눈을 뜨면 살맛을 잃습니다. 어제까지 목말랐던 나의 욕망, 나의 비전이 '칙칙하고 허무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그렇습니다.

더 갈 곳도 모르고, 더 갈 힘도 없구나.

너보다 앞서가는 놈이 있지!

앞에 누가 있나요?



신앙에 눈을 뜨면 살맛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의미 없던 나의 과거, 나의 내일이 '아름답고 영원한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그렇습니다.

더 자랄수록 더 열매를 맺는구나.

너처럼 나무에 접붙인 가지들이 있지.

옆에 누가 있나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살맛을 함께 맛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 상)

8면에서 이어집니다.

딸의 2차 수술 후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뇌수술을 한 것도 잊고 살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딸이 잘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감사의 시간 동안에도 코로나와 첫째의 요란한 사춘기, 남편의 회사 문제 등 여러 삶의 문제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삶은 그 어떤 어려움도 저를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저에게 맞춤형, 상상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탄한 가치에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을 저라는 것일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냉랭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애할 때보다 더 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무서운 시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외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의 큰 사랑으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

새공과소개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진지함과 명랑함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상의 풍조와 성경의 교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타락할 용기도 없고, 성경

처럼 살아갈 믿음도 없이, 우울하면서도 진지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으면서 명랑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설교가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시리즈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설교로 선포되었지만, 이 설

교로 인해 삶을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구역공과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을 마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기 전 설교청취공과인 사잇공과가 이어지는데, 그 주제가 바로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입니다.

구역 공부를 위해 2시간이 넘는 원본 설교를 1시간 이내로 편집을 하여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교 청취를 하다 보면 복음이 주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쉴 새 없이 치는 파도와 같이 우리 인생을 때리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 앞에서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명랑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양센터) ☆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딸로 모태신앙인 저는,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편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함이 아까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실까 봐 기도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옥의 두려움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복적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배운 신앙생활의 유익이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취업, 대학원 입학과 졸업 임용시험 합격, 결혼, 임신, 자연분만, 모유수유 완모까지... 여성으로 세상에 칭찬받을 일들을 모두 비교적 쉽게, 실패 없이 해왔던 저는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고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세상 기준에 잘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잘해야 한다는 불안함으로 늘 힘겨웠고 겉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더러운 시궁창 같았습니다. 2015년 겨울에 평촌으로 이사 오면서 열린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18개월이었고 저는 아이 셋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린교회의 세련됨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것이 좋았고 나름 열심히 해서 성장반도 수료하였습니다. 6개월 후 오랜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 셋의 엄마로 일까지 하는 것은 상상초월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래도 일하는 것이 좋았고 겉보기에 워킹맘으로 성공한 제 모습이 흠족해서 우선순위를 잊은 채 일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신앙생활과 육아는 겨우겨우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바빴던 시절이었고 영육 모두 고갈상태였습니다. 고갈은 원망으로 변해서 아이를 셋 낳은 것, 경제적으로 지원 없는 양가 부모님, 나보다 집안일을 안 하는 남편, 여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세상까지 원망하며 악으로 깡으로 매일을 버텼습니다.

2017년 12월 어느 날 침대에서 떨어진 둘째 딸이 구토를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이 아닌, 소녀에 모양이 안 좋은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한다가에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뇌 중앙 위험한 부분이라 5시간이 넘는 어렵고 긴 수술과 4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딸이 뇌 암으로 많이 아프게 된다면 또 죽는다면, 살아오면서 성취했던 재산, 직업 등등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지 않더라도 아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입원 생활 중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교만한 나를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 그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고 앞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딸의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 이어서 감사했지만 수술 중 뇌를 조금씩 건드렸기에 걷지 못하고 눈은 사시인 상황이었으며 병원 내 감염으로 감기에 걸려 퇴원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새해사경회 교구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금요일이었는데 괜찮던 아이가 갑자기 열나고 구토를 하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또다시 긴장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집도했던 교수님도 부재중인 시간이라 더 큰 불안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난 맛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 미안하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제발 새벽기도 일주일만 나가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새벽기도라는 것이 난생 처음인 남편이지만 5일 간의 교구별 새벽기도회에 모두 출석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그 주에 딸은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다음 주가 새해말씀사경회 기간이었는데 주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도 새롭게 들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몸의 전율 속에서 흐느끼며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섭고 힘들다고 말 못하고 센 척하며 지내던 외로운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으며 또 고난 당할 것이 두려웠기에 그날부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교육에 참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영적 생활의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심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이도 회복되어 잘 커가고 있어 이전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제 간증을 훈장처럼 달고 즐겁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마음은 다시 교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정기 MRI검사가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종양이 재발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그때가 또 마침 가을사경회 기간이었는데 새벽 말씀 주제가 '인생이 꼬일 때 기도하라'였습니다.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아브라함 말씀이었는데, 위로와 함께 몰랐던 제 못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장소만 바뀌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잘난 체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저를 말합니다. 다시 저는 발가벗겨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난을 통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제 내면의 넘어지기 쉬운 문제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딸의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딸은 이듬해에 여러 교우들의 기도 속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하고 잘 회복되었습니다.

7면에 계속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호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상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향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 안양 8, 8-1 군포 540, 8
-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